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

● 서울의 노동상담 통계

■ 일하는 당신 곁에, 권리구제지원사업 (2016 - 2019)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한 노동자들 :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 보다 가까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

1	서울의 노동상담 통계	08
1.	전체 노동상담 통계	10
2.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통계	18
3.	기관별 세부 노동상담 통계	24
2	일하는 당신 곁에, 권리구제지원사업 (2016-2019)	28
1.	전체 권리구제지원 통계	30
2.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한 노동자들: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34
3	보다 가까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0
1.	신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42
	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44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48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52
2.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내	56

일하는 당신 곁에, 서울노동권익센터

일하는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서울시민의 사회경제적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가 설립하고
(사)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겪게 되는 부당한 일에는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노동에 대한 연구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더불어 각종
권리 교육과 캠페인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일하는 서울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심볼은 서울·노동·권익·센터 4개 단어의 첫 자음을
이모티콘(^ ∨ ^ ^)으로 표현하여, 노동자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노동자의 웃음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홈페이지	팩스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계천로 105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www.labors.or.kr	070-8250-4349	
대표 번호	대표 이메일	
02-6925-4349	labors@labors.or.kr	
상담 번호	상담 시간	
02-376-0001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인사말

이 남 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상담은 변화를 품은 씨앗입니다.”

17,190건. 2019년 한해 동안 서울노동권익센터와 10개
자치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중랑구), 2개
권역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 동남권),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옹보즈만이
수행한 노동상담 횟수입니다. 방문, 전화, 온라인, SNS, 지하철
상담 등을 모두 포함했는데요. 정말 많은 서울시민들이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그만큼 숨한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이 많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지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 센터들이 수행한 노동자 권리구제지원도
567건에 달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노동존중특별시 청사진을
바탕으로 전향적으로 변화해온 서울시민들의 노동현실과 서울시
노동행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니다. 무엇보다 공공부문의
성과를 열악한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긴급한
과제로 대두했습니다. 특히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한 경비노동자 사례를
보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최희석님이 떠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주민 갑질로 외롭게 고통받다 목숨을 빼앗긴 최희석님에게
상담이든 권리구제지원이든 어떻게라도 이어졌다면 생명줄이 될 수도
있었겠다는 아쉬움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구요.
사회적 약자로 차별과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는 취약노동계층
서울시민들이 자신의 권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겠습니다.

한편 사례집에 실린 곡절많은 사연이 담긴 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을
책임진 노무사님들의 수고가 만만찮았을텐데요. 그저 고맙습니다. 하나의
우주인 한 생명을 돕고 살리는 귀한 일이지만, 불가피한 감정노동도
동반되는 노동상담인 만큼 상담 노무사님들도 함께 기운을 얻고 자기 존중이
높아지길 바랍니다. 자기 존중이야말로 상담을 풍요롭게 하고 좋은 삶을
살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상담은 변화를 품은 씨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상담은 다양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열린상담은 무엇보다 ‘변화에 기여하는 관계를
조직하는 일’입니다. 상담과 권리구제지원을 통한 다양한 관계맺음이
일상의 바람직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일굴 것이라 믿습니다. 매일 노동으로
하루를 여는 수많은 서울시민들에게 이 노동상담 사례집이 때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다면?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가 상시적으로 노동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 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의 법률대리인 지원제도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번호
02-376-0001
평일 오전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방문 상담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 또는 입증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을 예약하세요.

입증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등



온라인 상담

서울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상담을 남겨주세요. 빠른 시일 내 노무사가 답변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www.labors.or.kr



SNS 상담

서울시의 일하는 청년, 청소년을 위해 카카오톡 채팅으로 1:1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채널
카카오톡에서 '서울알바상담소'를 친구추가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권리구제지원제도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임금 체불, 부당해고, 산재 등 노동사건을 상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하고 수임료를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의 침해된 노동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무슨 일을 하나요?

노동권리보호관은 권리구제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전문가로 서울시장의 위촉을 받아 임명되며 공인노무사 50인, 변호사 15인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의뢰를 받아 행정기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위원회)과 법원을 상대로 하는 진정·청구·소송 등을 진행합니다.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이면서
- 월 평균임금 280만 원 이하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당사자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금을 못 받으신 경우(정기 급여,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 최저임금이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정직, 감봉 등)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지사(부서)등으로 발령받은 경우
-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
-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주세요.

몇 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지원 횟수는 개인당 2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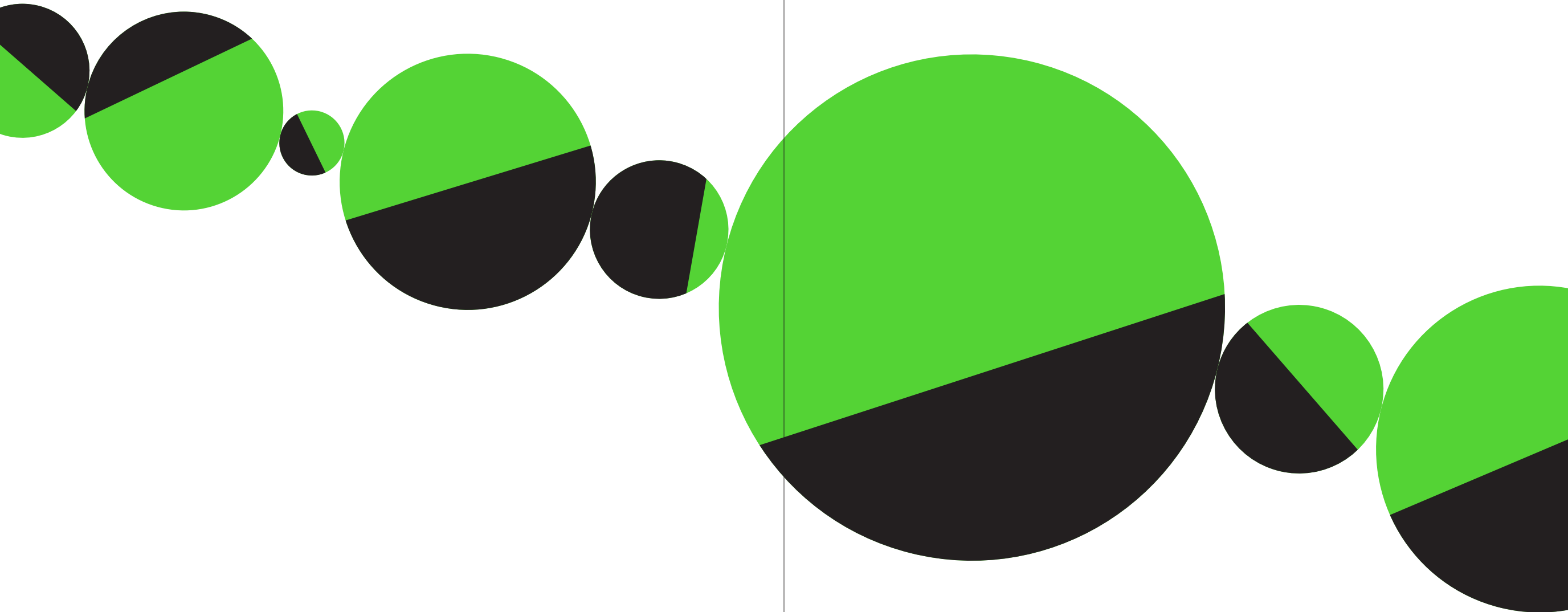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

- 수임료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합니다.
(단, 수임료 외에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노동상담 통계

전체 노동상담 통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통계
기관별 세부 노동상담 통계

2019년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옹부즈만 등
다양한 노동상담창구를 통해 서울시민을 만났고,
총 17,190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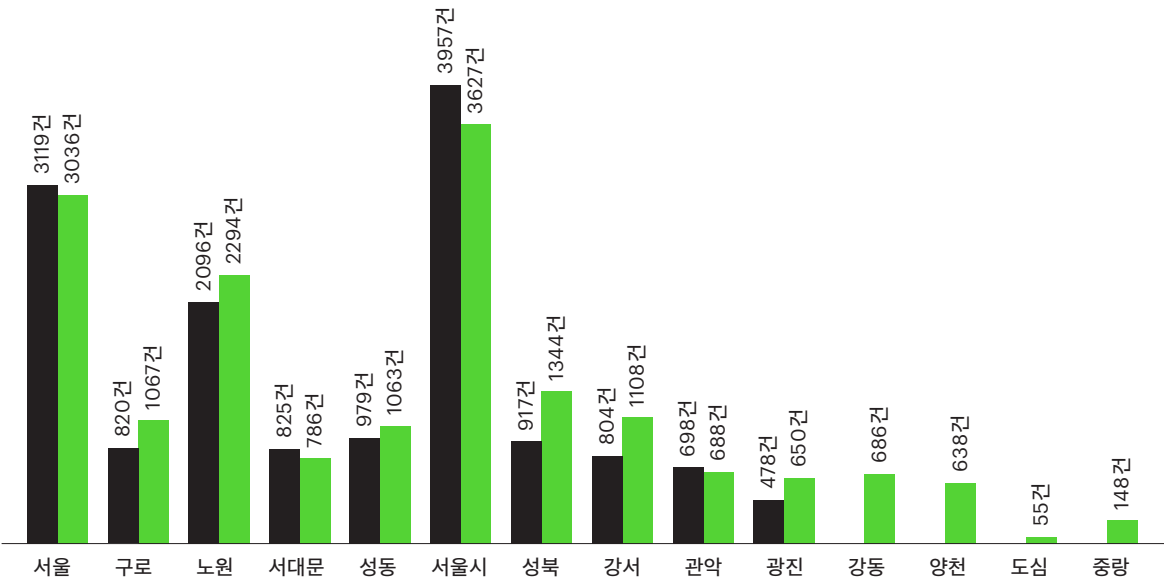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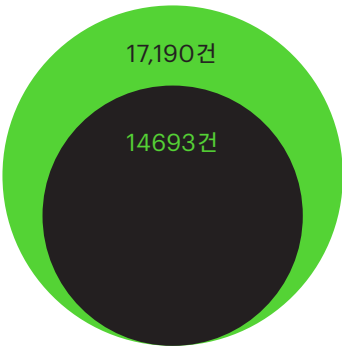


전체 노동상담 통계

2019, 서울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노동상담이 모여 **17,190건**의 노동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17,190건
+16.9%

상담기관별 상담현황
총 합계



① 상담기관별 상담현황

■ 2018 ■ 2019

상담기관별 상담현황

서울노동권익센터, 10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강동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중랑구) 2개 권역 노동자종합지원센터(도심권, 동남권),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옹호부즈만(25개 자치구)을 통해 노동상담이 이루어졌고, 2019년 서울시 통합노동상담DB를 통해 상담데이터를 함께 모았다.

→ ①

사용자 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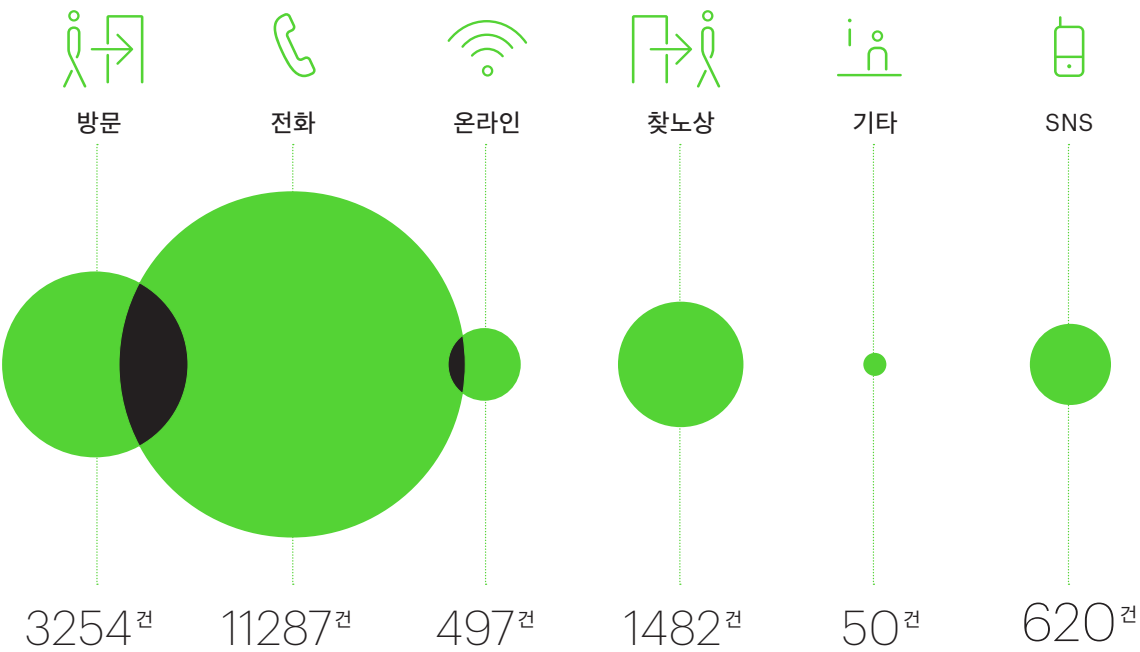
구분	방문	전화	온라인	찾노상 ¹	SNS	기타	총계
서노권 ²	2	45					47
구로	2	5					7
노원	3	14	1	1			19
서대문	1	8					9
서울시 ³	2	44	1				47
성북	2	26		1	1	1	31
강서		7		1			8
관악	4	13	1	1			19
중랑				1			1

¹ 찾아가는 노동상담
² 서울노동권익센터
³ 서울시시민명예노동옹호부즈만

다양한 상담방법

2019년에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서울시민과 노동상담을 나누었다. 찾아가는 노동상담은 2018년(812건) 대비 절반이상 증가하였고, SNS 상담은 2018년(198건) 대비 세배 가까이 늘었다.

→ ②



② 다양한 상담방법

연령대	2018	2019
10대	1.1%	0.6%
20대	13.5%	13.5%
30대	21.5%	20.5%
40대	21.8%	20.6%
50대	23.0%	22.6%
60대	15.7%	17.9%
70대 이상	3.4%	4.4%

③ 연령대별 상담현황

■ 2018 ■ 2019

연령대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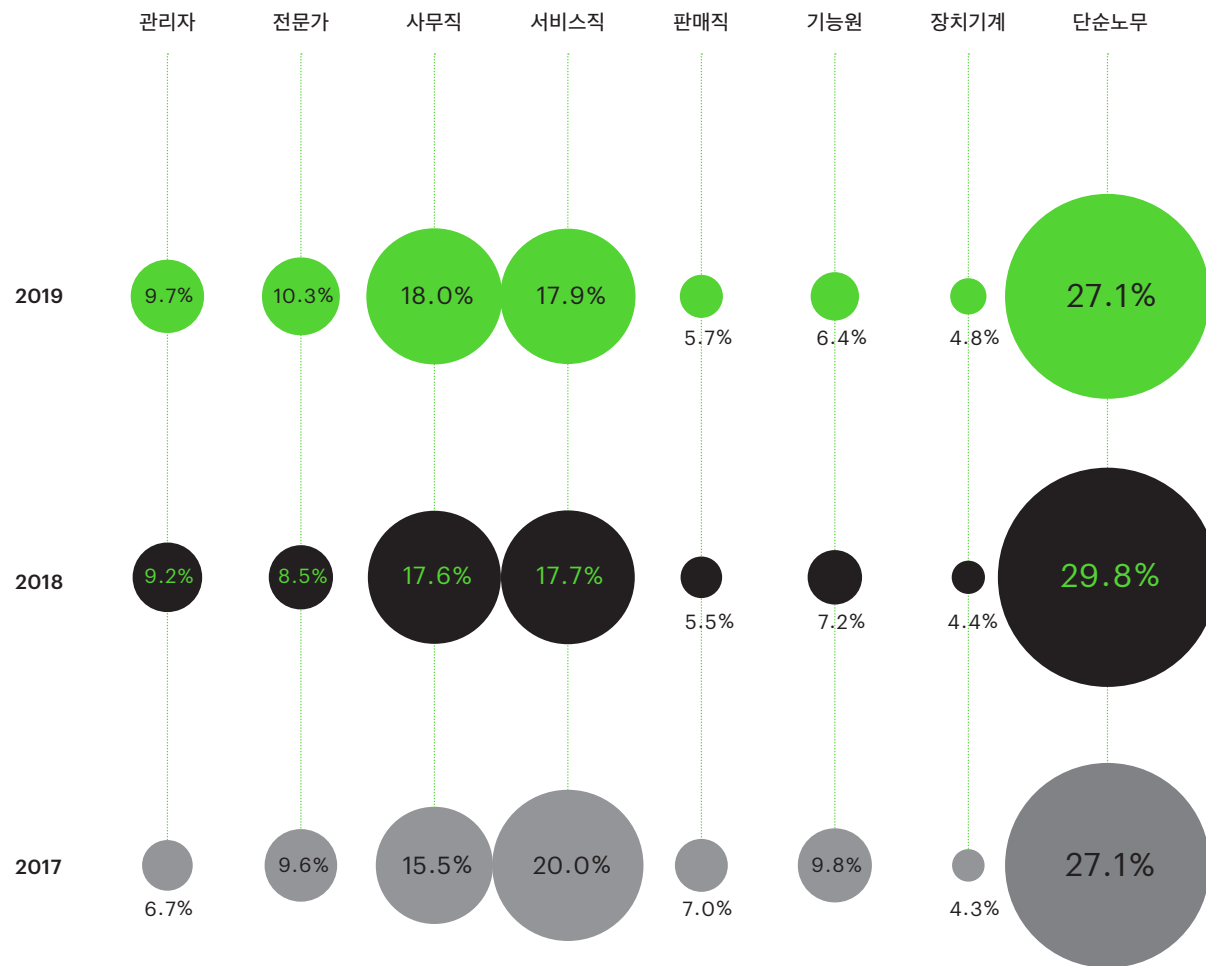
상담 연령대는 20대부터 70대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50대의 상담은 전체 상담의 22.6%로 2018년과 더불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60-70대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 ③

직종별 상담현황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단순노무직의 상담은 2017년 27.1%, 2018년 29.8%, 2019년 27.1%로 전체 상담에서 꾸준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단순노무직과 더불어 서비스직, 사무직의 상담이 총 63%로 과반 이상이며, 전문가, 사무직, 서비스직과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관리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 하다.

→ 4



4 직종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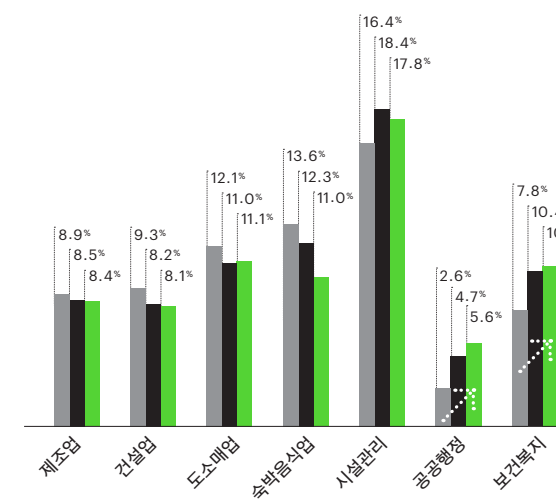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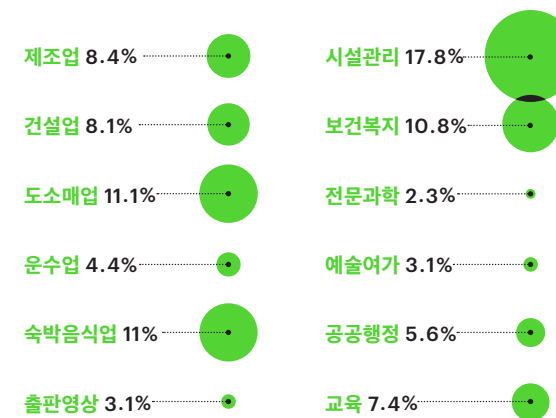
■ 2017 ■ 2018 ■ 2019

업종별 상담현황

청소, 경비, 주차관리 등 용역업체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시설관리업은 전체 상담에서 가장 상담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2017년 16.4%, 2018년 18.4%, 2019년 17.8%를 보인다. 제조업, 숙박음식업 등 다른 업종은 예년과 유사하거나 상담비중이 소폭 감소한 반면, 공공행정과 보건·복지 부문의 상담은 2018년부터 계속하여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5

2019 업종별 상담현황



5 업종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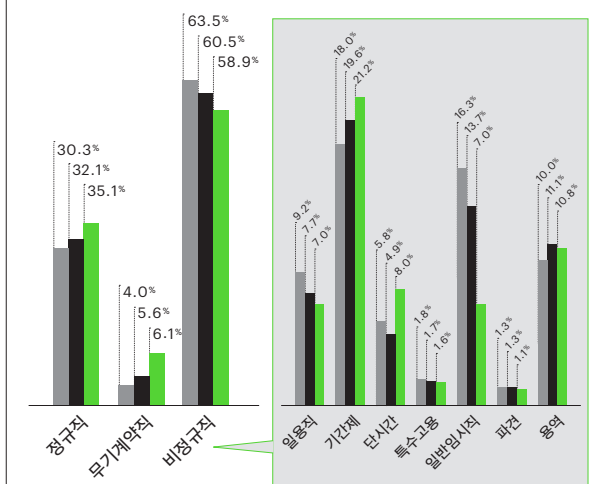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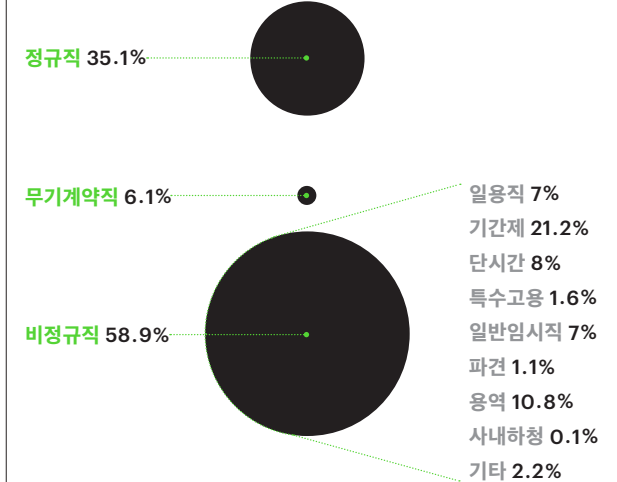
■ 2017 ■ 2018 ■ 2019

고용형태별 상담현황

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상담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의 상담 비중은 총 58.9%로 여전히 매우 높다. 비정규직에는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특수고용, 일반임시직, 파견, 용역, 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 여기서 일반임시직은 정규직과 다를 바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근로계약서 미지급 등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임시직은 감소한 반면, 기간제, 단시간은 크게 증가하였다.

→ 6

2019 직종별 상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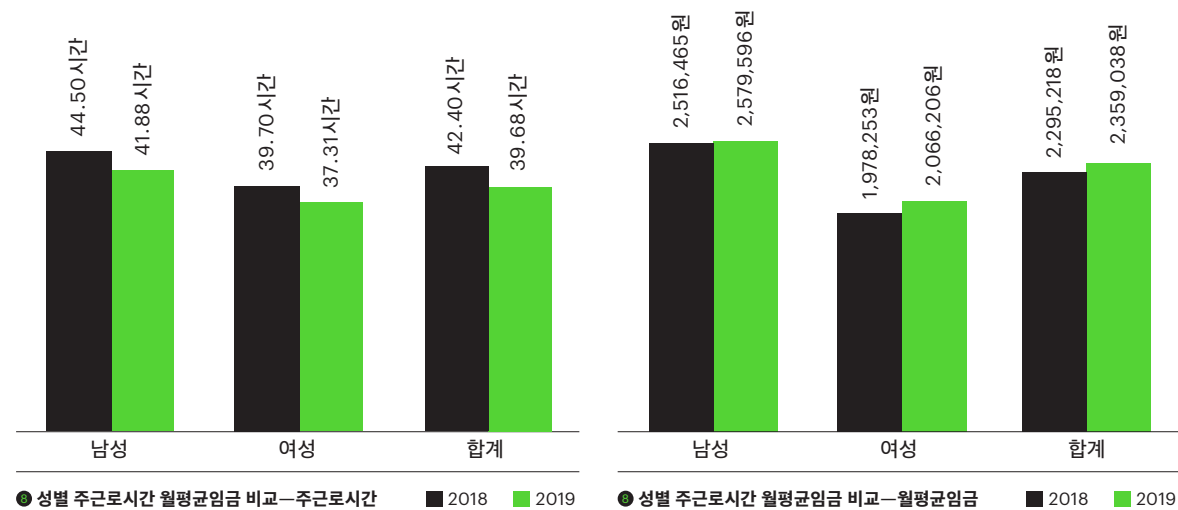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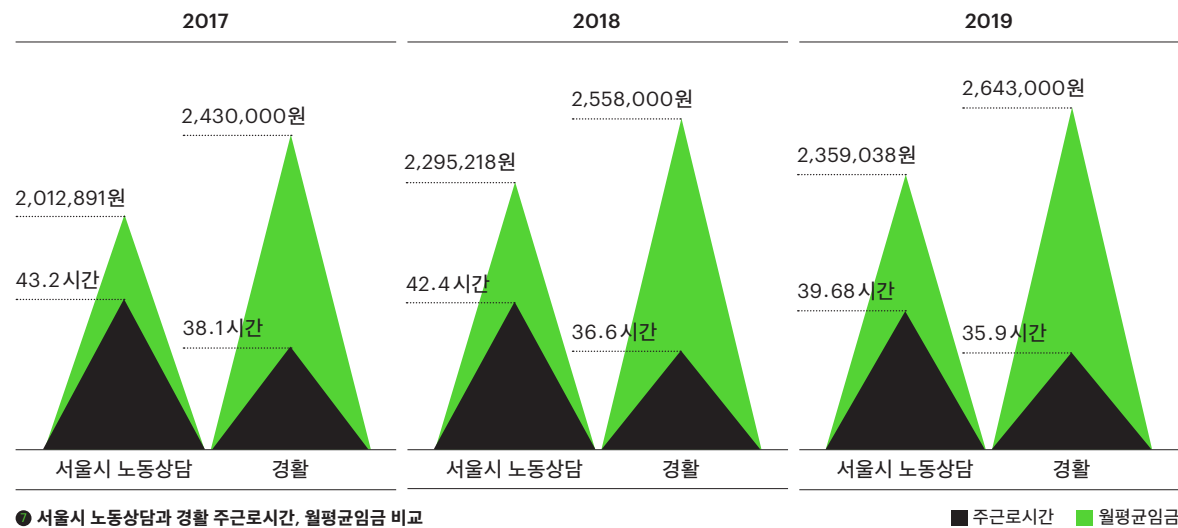
6 고용형태별 상담현황

■ 2017 ■ 2018 ■ 2019

서울시 노동상담과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주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비교

서울시 노동상담은 비정규직 상담 비중이 58.9%인 반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19년 8월, 이하 경할)에서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36.4%로 큰 차이를 보인다. 두배 가까운 차이를 반영하듯, 서울시 노동상담을 찾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고, 임금은 더 적다.

→ 7



성별 주근로시간, 월평균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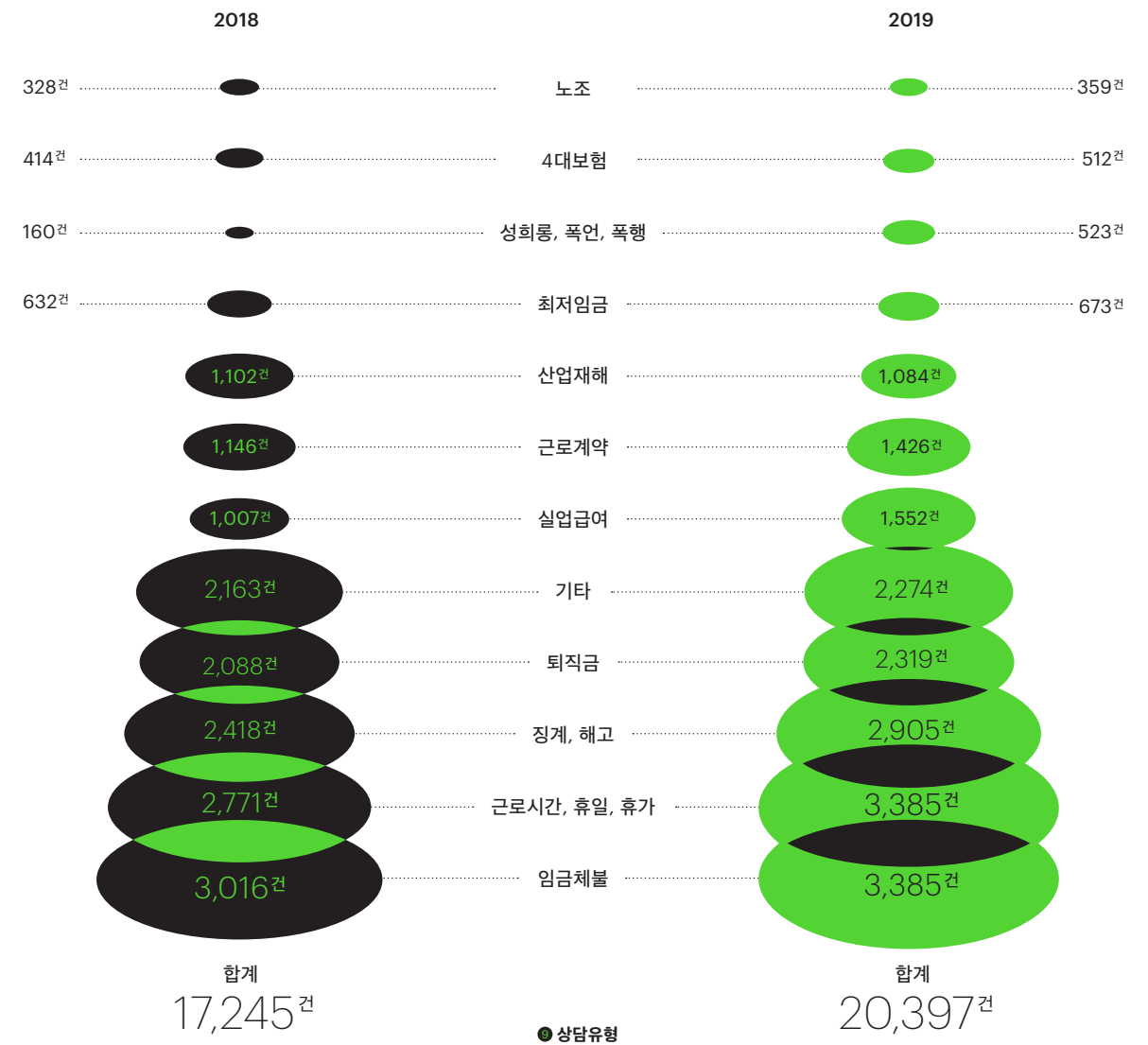
주52시간제 시행으로 2018년에 비하여 남성, 여성 모두의 주근로시간이 감소하였다. 남성보다 여성의 주근로시간이 훨씬 적게 나타나며, 월평균임금도 50만원 이상 차이가 났다. 여성의 단시간 노동이 많아지며 이의 영향으로 남녀평균 주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줄어 단시간 노동의 영역으로 진입하였다.

→ 8

상담유형

임금체불, 징계·해고, 근로시간·휴일·휴가에 대한 상담 비중은 전체 상담의 47.4%로 과반에 가깝다. 위 상담유형들은 서울시민들이 가장 자주 마주치고 궁금해하는 문제들로, 매년 상위 3위권에 포함되고 있다. 2019년에는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시행,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및 기타 변경으로 해당 상담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성희롱·폭언·폭행 등 직장내괴롭힘 관련 상담이 2018년에 비해 세배 이상 증가하였다.

→ 9



영역별 상담유형

직종별 상담유형

직종	1순위	2순위	3순위
관리자	근로시간, 휴일, 휴가 24.3%	기타 18.7%	임금체불 11.7%
전문가	징계, 해고 21.2%	임금체불 13.5%	근로시간, 휴일, 휴가 13.2%
사무직	징계, 해고 19.2%	근로시간, 휴일, 휴가 18.8%	임금체불 12.2%
서비스직	임금체불 19.5%	근로시간, 휴일, 휴가 15.2%	징계, 해고 14.0%
판매직	임금체불 23.6%	퇴직금 15.1%	징계, 해고 13.1%
기능원	임금체불 24.2%	퇴직금 16.0%	징계, 해고 13.4%
장치기계조작	임금체불 19.1%	근로시간, 휴일, 휴가 16.7%	퇴직금 13.4%
단순노무	근로시간, 휴일, 휴가 18.6%	임금체불 18.1%	징계, 해고 14.6%

고용형태별 상담유형

고용형태	1순위	2순위	3순위
정규직	징계, 해고 18%	근로시간, 휴일, 휴가 17.4%	임금체불 12.9%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휴일, 휴가 20.5%	임금체불 15.5%	징계, 해고 12.9%
일용직	임금체불 33.4%	산업재해 18.3%	퇴직금 15.6%
기간제	징계, 해고 19.1%	임금체불 15.5%	근로시간, 휴일, 휴가 14.1%
단시간	근로시간, 휴일, 휴가 24.8%	임금체불 21.8%	퇴직금 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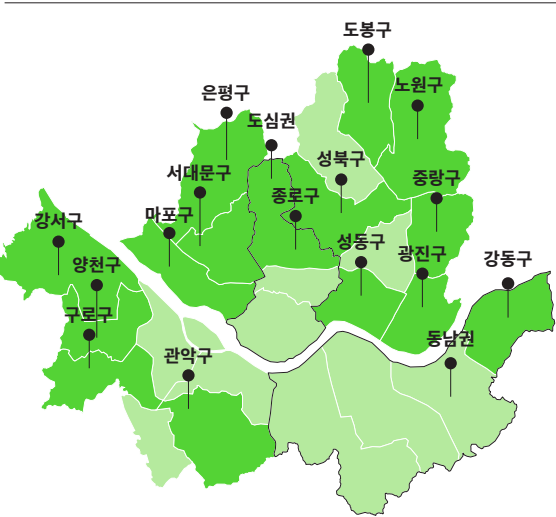
특수고용	퇴직금 24.4%	근로계약 19.8%	임금체불 19.2%
일반임시직	임금체불 24.4%	퇴직금 17.7%	징계, 해고 15.1%
파견	징계, 해고 22.4%	근로시간, 휴일, 휴가 18.4%	기타 14.4%
용역	근로시간, 휴일, 휴가 26.9%	징계, 해고 17.8%	임금체불 11.7%
사내하청	산업재해 40.0%	임금체불 20.0%	징계, 해고 20.0%
기타	기타 26.5%	임금체불 17.9%	근로계약 12.8%

연령대별 상담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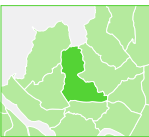
연령대	1순위	2순위	3순위
10대	임금체불 34.0%	근로시간, 휴일, 휴가 18.9%	기타 17.9%
20대	임금체불 24.1%	근로시간, 휴일, 휴가 15.1%	징계, 해고 13.9%
30대	근로시간, 휴일, 휴가 18.0%	징계, 해고 16.6%	임금체불 14.2%
40대	근로시간, 휴일, 휴가 17.3%	징계, 해고 14.5%	임금체불 14.3%
50대	임금체불 17.3%	근로시간, 휴일, 휴가 14.5%	퇴직금 14.1%
60대	근로시간, 휴일, 휴가 17.2%	임금체불 15.8%	퇴직금 15.2%
70대 이상	임금체불 19.0%	퇴직금 17.0%	근로시간, 휴일, 휴가 16.0%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노동상담 통계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운동부즈만 등
서울시민의 노동상담을 위해
다양한 노동상담창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노동에
귀 기울이려는 노력이 모여
보다 가까이에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동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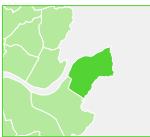
서울노동권익센터



주로 전화상담(89.3%)이 많이 이루어진다. 20~30대
상담이 전체 상담의 49.7%에 달할 정도로 연령층이
젊은 편이며, 사무직, 서비스직의 비중도 다른 기관에
비해 높다. 임금체불과 징계·해고 상담이 전체상담의
51.4% 정도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강남구인 시민의 상담이 많았다.

전화상담	징계·해고
89.3%	23.7%
20대	임금체불
24.9%	27.7%
30대	5인미만 사업장
24.8%	27.2%
사무직	10인미만 사업장
21.4%	24.6%
서비스직	경기도 거주지
19.6%	19.4%
비정규직	강남구 회사소재지
63.5%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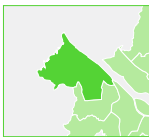
강동구노동권익센터



전화상담(56.1%), 방문상담(26.4%), 찾아가는
노동상담(17.3%) 등이 주를 이루며, 40대부터
60대의 상담이 각각 20% 이상으로 전체 상담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중장년층의 노동상담이 많다.
서비스직 상담과 단순노무직 상담의 비중이 높았는데,
감정노동 심리상담, 이동노동자지원센터
및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임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으며,
5인미만 사업장이 40.4%에 달했다.

40대	비정규직
23.3%	54.8%
50대	근로시간
25.5%	20.0%
60대	임금체불
20.5%	21.6%
서비스직	5인미만 사업장
20%	40.4%
단순노무직	강동구 거주지
33.5%	94.7%
정규직	강동구 회사소재지
31.6%	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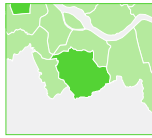
강서구노동복지센터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상담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사무직(30.9%),
단순노무직(35.6%)의 상담 비중이 높다. 비정규직
상담은 전체의 62.4%인데 그중 기간제의 비중이
34.7%로 매우 높다. 노동상담 대부분이 강서에
거주중인 시민(95.9%)이며, 강서에 회사를 둔 시민의
상담도 78.8%에 달한다.

30대	기간제
22.4%	34.7%
40대	강서구 거주지
20%	95.9%
50대	강서구 회사소재지
23.8%	78.8%
60대	
19.1%	
사무직	
30.9%	
단순노무직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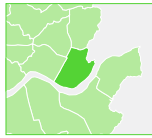
관악구노동복지센터



20대부터 60대까지 상담자의 연령분포가 고른편이고,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관악청년노(勞)스쿨 등 청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영향인지 다른 기관보다 20~30대의 노동상담 비중이 높았다. 정규직 상담 및 서비스직 상담 비중이 매우 높았고, 관악구의 사업장은 영세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상담의 50% 이상이 5인미만, 10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시민이었다. 임금체불, 징계·해고와 더불어 노동법 외 다양한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시민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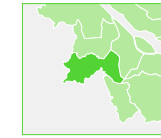
20대	임금체불	방문상담	관진구 회사소재지
19.7%	23%	31.5%	65.8%
30대	징계·해고	서비스직	
22.5%	14.8%	27.1%	
서비스직	기타	기간제	
29%	16.9%	41.3%	
정규직	관악구 거주지	임금체불	
49.7%	83.2%	39.8%	
5인미만 사업장	관악구 회사소재지	10인미만 사업장	
16.6%	44.1%	34.3%	
10인미만 사업장		관진구 거주지	
37.9%		97.1%	

광진구노동복지센터



방문상담 비중이 높으며, 20대부터 60대까지 상담자의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관련 활동의 영향인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서비스직 상담이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에 관련된 상담이 눈에 띄게 많았으며, 기간제의 비중도 높다. 광진구에 거주하는 시민의 상담이 대다수이고 광진구에 회사를 둔 시민들도 과반 이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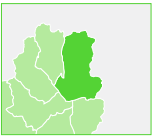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



가산·구로디지털산업단지, 운수산업공단 등이 위치해 있는 지역의 특성 때문인지 20~30대 노동상담 비중이 53.2%로 매우 높다. 단순노무직 상담도 많지만, 돌봄노동자 특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서비스직 상담도 많다. 비정규직 상담 비중은 전체의 69.5% 정도로 일용직, 기간제, 단시간, 일반임시직 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20대
28.9%
30대
24.3%
단순노무직
32%
서비스직
21%
비정규직
69.5%
임금체불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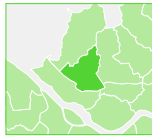
노원노동복지센터



지하철 역사 내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으며, 전화상담이 방문상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방문상담 비중이 41.9%로 높게 나타난다. 경비노동자, 돌봄노동자, 청소년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50~60대의 상담과 단순노무직과 서비스직 상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수년간 경비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하여 비정규직 상담비중이 높고 그 중에서도 용역 상담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내담자의 근로시간도 가장 길다.

방문상담	용역
41.9%	40.8%
50대	주근로시간
23.1%	42.36시간
60대	100인이상 사업장
34.4%	52.9%
단순노무직	
49.9%	
서비스직	
16.1%	
비정규직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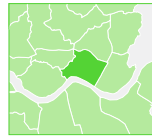
서대문구근로자복지센터



주변에 노후 주택과 시민아파트가 밀집해있고 재래시장에 위치하여 고령노동자의 방문상담이 많은 편이다. 최근에는 20~40대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어 2018년 60.2%였던 50대 이상 상담비중이 2019년에는 58.7%로 감소하였다. 돌봄종사자 상담이 많아 서비스직 상담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규직 비중도 높다. 5인, 10인, 30인미만 사업장이 전체 상담의 77.5%에 달할 정도로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시민의 비중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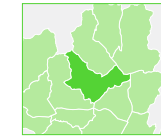
방문상담	10인미만 사업장	30대	임금체불
33.6%	24.8%	26%	20.5%
50대	30인미만 사업장	40대	노동조합
24.9%	24.1%	37.8%	6.3%
60대		50대	5인미만 사업장
27.1%		25%	38.7%
서비스직		관리자	
28.7%		21.9%	
정규직		전문가	
43.6%		18.8%	
5인미만 사업장		기간제	
28.6%		27.2%	

성동구근로자복지센터



30~50대의 상담비중이 전체 상담의 88.8%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그 중에서도 40대 시민의 상담이 가장 많았다. 다른 기관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상담이 많은 점도 특징이다. 비정규직 상담은 64.9%인데 기간제 상담이 많은 편이고, 5인미만 사업장의 비중이 38.7%로 높게 나타난다. 임금체불에 관한 상담비중이 가장 크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상담도 꽤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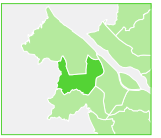
성북구노동권익센터



장위동 등 봉제공장이 많은 성북구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봉제노동자 특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영세사업장·여성·청소년 노동자의 상담이 많다. 단순노무직, 서비스직, 기능원 순으로 상담비중이 높는데, 경비노동자와 돌봄종사자, 봉제노동자 상담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40~60대 상담비중이 높으며, 임금체불과 퇴직금, 근로시간·휴일·휴가에 관한 상담이 많다. 퇴직금 상담 비중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이유는 여전히 4대보험 및 퇴직금을 보장하지 않는 봉제공장이 많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40대	임금체불
20.5%	24.3%
50대	퇴직금
23.3%	14.9%
60대	근로시간·휴일·휴가
27.1%	15.3%
단순노무직	
30.4%	
서비스직	
17.1%	
기능원	
9.9%	

양천구노동복지센터



주민센터 내 위치해 접근성이 좋아 방문상담의 비중이 높으며 전화상담, 찾아가는 노동상담도 고루 분포되어있다. 비정규직 상담비중이 75.2%로 기간제 및 단시간 상담이 많으며, 직종도 단순노무직 상담이 가장 많았다. 이는 일자리플러스센터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취업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노동상담도 이용했기 때문일 것이라 추정된다. 비슷한 이유로 상담유형도 임금체불과 구직문의 등 기타상담이 많았다. 50~60대 상담이 전체 상담의 54.2%로 과반을 넘었다.

방문상담	기간제
35.9%	28.3%
전화상담	단시간
34.6%	18.7%
찾아가는노동상담	임금체불
22.4%	20.8%
50대	기타
24.4%	16.6%
60대	
29.8%	
단순노무직	
32.3%	

기관별 세부
노동상담 통계

상담기관별 상담방법

상담방법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방문	4.6%	20.1%	41.9%	33.6%	14.5%	10.9%	16.1%	16.7%	14.8%	31.5%	26.4%	35.9%	0.0%	5.5%
전화	89.3%	31.5%	54.2%	55.5%	52.9%	82.4%	66.1%	68.1%	64.1%	45.7%	56.1%	34.6%	7.3%	10.8%
온라인	0.0%	3.8%	1.4%	1.5%	9.2%	5.2%	1.8%	1.9%	1.5%	2.5%	0.1%	4.5%	47.3%	0.0%
찾노상	0.7%	16.4%	1.3%	7.6%	16.4%	0.4%	15.6%	13.1%	19.6%	20.3%	17.3%	22.4%	0.0%	83.8%
SNS	0.0%	0.0%	0.0%	1.7%	0.0%	0.5%	0.1%	0.1%	0.0%	0.0%	0.0%	2.5%	0.0%	0.0%
기타	5.3%	28.1%	1.2%	0.1%	7.1%	0.7%	0.2%	0.1%	0.0%	0.0%	0.0%	0.0%	45.5%	0.0%

상담기관별 연령대

연령대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10대	1.4%	0.8%	0.6%	0.0%	0.7%	0.7%	0.3%	0.3%	0.8%	0.4%	0.7%	0.0%	2.4%	0.0%
20대	24.9%	28.9%	6.8%	9.4%	6.7%	11.7%	8.8%	11.1%	19.7%	16.9%	8.2%	7.7%	70.7%	3.7%
30대	24.8%	24.3%	12.4%	14.5%	26.0%	27.3%	12.1%	22.4%	22.5%	16.7%	18.3%	10.3%	24.4%	13.0%
40대	18.2%	12.2%	13.8%	17.3%	37.8%	25.2%	20.5%	20.0%	17.6%	23.0%	23.3%	17.6%	0.0%	12.0%
50대	16.6%	21.8%	23.1%	24.9%	25.0%	24.1%	23.3%	23.8%	20.1%	24.0%	25.5%	24.4%	2.4%	18.5%
60대	11.7%	9.1%	34.4%	27.1%	3.1%	9.1%	27.1%	19.1%	14.9%	17.8%	20.5%	29.8%	0.0%	38.9%
70대 이상	2.5%	2.9%	8.9%	6.7%	0.7%	1.9%	7.9%	3.4%	4.4%	1.2%	3.5%	10.2%	0.0%	13.9%

상담기관별 직종

직종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관리자	9.1%	6.4%	6.2%	9.1%	21.9%	15.7%	7.9%	4.9%	8.4%	4.4%	11.9%	11.9%	0.0%	3.4%
전문가	15.2%	7.3%	9.5%	6.5%	18.8%	8.2%	9.5%	7.2%	12.8%	7.6%	8.3%	13.8%	34.5%	8.0%
사무직	21.4%	11.9%	4.8%	16.7%	7.5%	23.6%	14.1%	30.9%	17.1%	21.0%	15.2%	6.5%	20.7%	10.2%
서비스직	19.6%	21.0%	16.1%	28.7%	10.6%	15.2%	17.1%	11.4%	29.0%	27.1%	20.0%	16.5%	17.2%	12.5%
판매직	7.7%	12.8%	3.6%	3.6%	6.9%	5.9%	4.8%	4.5%	3.1%	5.7%	7.1%	6.5%	10.3%	1.1%
농림어업	0.0%	0.0%	0.1%	0.0%	0.0%	0.1%	0.1%	0.0%	0.0%	0.0%	0.0%	0.8%	0.0%	1.1%
기능원	5.7%	5.0%	4.4%	8.4%	10.0%	9.7%	9.9%	3.3%	5.9%	1.9%	1.2%	5.4%	0.0%	19.3%
장치기계조작	5.5%	3.7%	5.4%	6.7%	5.6%	4.3%	6.1%	2.1%	2.2%	7.3%	2.8%	6.2%	0.0%	3.4%
단순노무직	15.8%	32.0%	49.9%	20.3%	18.8%	17.4%	30.4%	35.6%	21.5%	25.0%	33.5%	32.3%	17.2%	40.9%

상담기관별 고용형태

고용형태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정규직	29.7%	25.1%	18.5%	43.6%	23.8%	50.9%	42.7%	28.2%	49.7%	22.8%	31.6%	19.6%	45.0%	34.4%
무기계약	3.7%	3.0%	5.9%	3.3%	4.0%	7.2%	3.1%	9.2%	4.2%	13.6%	11.3%	1.3%	0.0%	1.6%
비정규직	63.5%	69.5%	74.0%	49.7%	64.9%	40.1%	52.2%	62.4%	40.9%	62.2%	54.8%	75.2%	55.0%	60.9%
일용직	3.6%	10.8%	4.5%	5.6%	2.6%	9.8%	12.3%	4.8%	5.5%	7.9%	4.0%	7.8%	5.0%	23.4%
기간제	18.8%	18.7%	14.1%	26.7%	27.2%	16.8%	17.0%	34.7%	22.7%	41.3%	22.6%	28.3%	20.0%	17.2%
단시간	13.3%	19.2%	5.0%	5.9%	9.3%	6.2%	9.0%	3.3%	2.7%	6.1%	13.0%	18.7%	30.0%	9.4%
특수고용	1.9%	5.4%	1.0%	1.8%	0.7%	1.4%	1.0%	3.7%	0.6%	0.9%	0.6%	1.3%	0.0%	1.6%
일반임시직	16.9%	8.9%	7.8%	3.1%	7.3%	3.6%	6.0%	2.7%	2.4%	1.1%	7.3%	9.6%	0.0%	6.3%
파견	1.1%	1.5%	0.7%	1.5%	7.9%	0.8%	0.6%	0.6%	3.0%	1.1%	1.7%	0.9%	0.0%	0.0%
용역	7.8%	4.9%	40.8%	5.1%	9.9%	1.5%	6.3%	12.6%	3.6%	3.9%	5.6%	8.7%	0.0%	3.1%
사내하청	0.1%	0.0%	0.1%	0.0%	0.0%	0.0%	0.0%	0.0%	0.3%	0.0%	0.0%	0.0%	0.0%	0.0%
기타	3.1%	2.5%	1.6%	3.3%	7.3%	1.8%	2.0%	0.2%	5.2%	1.3%	2.3%	3.9%	0.0%	3.1%

상담기관별 상담유형

상담유형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임금체불	27.7%	27.9%	25.7%	25.8%	20.5%	15.7%	24.3%	19.6%	23.0%	39.8%	21.6%	20.8%	47.3%	18.2%
징계,해고	23.7%	9.1%	15.6%	13.2%	13.8%	15.0%	10.0%	14.1%	14.8%	15.1%	9.2%	9.4%	12.7%	9.5%
퇴직금	7.0%	9.3%	10.2%	13.4%	8.1%	12.4%	14.9%	13.4%	9.3%	9.5%	11.8%	12.9%	3.6%	16.9%
실업급여	4.4%	8.3%	10.0%	7.4%	6.1%	5.3%	12.6%	7.6%	10.0%	8.3%	9.3%	10.5%	7.3%	17.6%
근로시간,휴일,휴가	13.1%	13.1%	16.0%	13.6%	15.0%	18.5%	15.3%	16.1%	6.0%	11.1%	20.0%	11.0%	7.3%	4.7%
근로계약	5.8%	3.6%	5.2%	5.2%	3.8%	6.1%	3.9%	9.7%	3.3%	4.3%	12.4%	6.6%	0.0%	0.7%
최저임금	0.7%	3.8%	1.1%	1.1%	1.5%	2.8%	2.6%	2.6%	1.5%	1.1%	2.6%	3.6%	0.0%	2.7%
산업재해	2.9%	5.4%	5.4%	4.2%	5.8%	8.8%	6.0%	4.0%	4.4%	3.2%	3.5%	4.1%	3.6%	6.1%
성희롱,폭언,폭행	4.0%	3.7%	0.7%	1.4%	0.3%	1.9%	1.8%	2.0%	5.1%	0.2%	1.6%	2.5%	1.8%	0.0%
노조	0.8%	0.7%	1.2%	1.3%	6.3%	1.6%	0.4%	2.9%	4.2%	0.9%	2.8%	0.3%	0.0%	0.7%
기타	8.5%	13.2%	7.2%	9.4%	16.9%	9.7%	6.4%	6.8%	16.9%	3.8%	3.9%	16.6%	14.5%	18.2%
4대보험	1.4%	1.8%	1.5%	3.9%	1.9%	2.2%	1.9%	1.4%	1.6%	2.6%	1.3%	1.7%	1.8%	4.7%

상담기관별 주근로시간과 월평균임금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주근로시간	35.55시간	37.19시간	42.36시간	35.75시간	27.64시간	40.86시간	39.88시간
월평균임금	2,180,482원	1,802,456원	1,936,492원	2,307,564원	2,061,250원	2,742,890원	2,169,893원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주근로시간	36.81시간	40.30시간	40.72시간	36.17시간	40.21시간	39.67시간	20시간
월평균임금	1,918,107원	2,128,870원	1,832,175원	2,033,333원	1,886,153원	1,976,923원	1,350,000원

상담기관별 근로자수

근로자수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5인미만	27.2%	28.7%	11.2%	28.6%	38.7%	18.0%	26.7%	25.0%	16.6%	17.3%	40.4%	33.3%	32.4%	25.0%
5인이상10인미만	24.6%	27.0%	14.8%	24.8%	22.6%	23.4%	33.6%	21.9%	37.9%	34.3%	28.1%	24.7%	26.5%	28.8%
10인이상30인미만	20.8%	12.6%	12.6%	24.1%	22.6%	29.6%	20.4%	12.9%	18.5%	28.9%	24.7%	15.1%	17.6%	25.0%
30인이상100인미만	13.7%	20.7%	8.4%	11.6%	12.9%	17.5%	10.1%	18.8%	6.6%	14.7%	2.2%	16.1%	11.8%	13.5%
100인이상	13.7%	10.9%	52.9%	10.9%	3.2%	11.5%	9.1%	21.4%	20.4%	4.8%	4.5%	10.8%	11.8%	7.7%

상담기관별 거주지

거주지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강남	5.1%	0.0%	0.4%	0.0%		2.3%	0.6%	0.1%	0.4%	0.0%	0.5%	0.4%	4.2%	0.0%
강동	3.3%	0.3%	0.3%	0.0%		1.5%	0.1%	0.1%	0.4%	0.2%	94.7%	0.0%	4.2%	0.0%
강북	3.4%	0.3%	1.4%	0.0%		1.9%	11.9%	0.0%	0.0%	0.2%	0.2%	0.0%	0.0%	0.0%
강서	5.2%	3.9%	0.6%	1.6%		2.1%	0.5%	95.9%	0.0%	0.0%	0.0%	7.7%	0.0%	0.0%
관악	3.0%	5.9%	0.5%	0.8%		2.0%	0.5%	0.3%	83.2%	0.2%	0.0%	0.4%	4.2%	0.0%
광진	1.6%	0.7%	0.5%	1.6%		0.5%	0.4%	0.1%	0.4%	97.1%	0.3%	0.0%	4.2%	2.6%
구로	3.4%	46.4%	0.4%	0.0%		8.1%	0.2%	0.0%	1.5%	0.0%	0.0%	1.5%	0.0%	0.0%
금천	1.4%	9.2%	0.5%	0.0%		9.2%	0.0%	0.0%	3.1%	0.0%	0.2%	0.6%	0.0%	0.0%
노원	3.7%	0.3%	72.7%	0.8%		8.2%	6.5%	0.0%	0.0%	0.2%	0.2%	0.2%	0.0%	0.0%
도봉	1.8%	0.7%	4.8%	0.0%		1.7%	4.7%	0.0%	0.0%	0.0%	0.0%	0.0%	0.0%	0.0%
동대문	2.3%	0.0%	1.2%	0.0%		2.8%	3.3%	0.0%	0.4%	0.5%	0.3%	0.4%	0.0%	0.0%
동작	2.2%	2.0%	0.0%	0.0%		1.6%	0.8%	0.0%	4.2%	0.0%	0.0%	0.2%	0.0%	0.0%
마포	4.0%	0.3%	0.0%	0.0%		1.2%	0.8%	0.0%	0.4%	0.0%	0.2%	0.6%	0.0%	0.0%
서대문	2.1%	1.6%	0.6%	75.2%		0.9%	0.4%	0.0%	0.0%	0.0%	0.0%	0.0%	0.0%	0.0%
서초	2.7%	0.3%	0.3%	0.8%		1.5%	0.0%	0.0%	0.4%	0.4%	0.2%	0.2%	4.2%	0.0%
성동	2.6%	0.0%	0.2%	0.0%		4.1%	0.5%	0.0%	0.0%	0.5%	0.5%	0.0%	0.0%	0.0%
성북	2.1%	0.0%	2.2%	0.8%		9.7%	55.4%	0.1%	0.0%	0.0%	0.2%	0.2%	0.0%	0.0%
송파	4.4%	0.3%	0.6%	0.8%		8.0%	0.1%	0.0%	0.4%	0.2%	0.5%	0.2%	4.2%	0.0%
양천	1.0%	1.6%	0.0%	1.6%		0.7%	0.1%	0.8%	0.0%	0.0%	0.2%	79.2%	0.0%	0.0%
영등포	2.3%	10.5%	0.2%	0.0%		3.8%	0.2%	0.1%	0.0%	0.0%	0.0%	0.6%	0.0%	0.0%
용산	1.5%	0.0%	0.0%	0.8%		2.2%	0.6%	0.0%	0.4%	0.2%	0.0%	0.0%	4.2%	0.0%
은평	4.1%	0.7%	0.2%	10.4%		1.8%	1.9%	0.0%	0.4%	0.0%	0.0%	0.4%	0.0%	0.0%
종로	1.4%	0.3%	0.0%	0.0%		1.8%	0.4%	0.0%	0.0%	0.0%	0.0%	0.4%	0.0%	0.0%
중구	1.8%	0.0%	0.1%	0.0%		1.7%	0.7%	0.0%	0.0%	0.0%	0.2%	0.2%	0.0%	0.0%
중랑	1.6%	0.0%	2.8%	0.0%		3.7%	2.5%	0.1%	0.0%	0.2%	0.5%	0.6%	4.2%	97.4%
경기도	19.4%	11.8%	8.2%	4.0%		14.0%	5.6%	1.9%	2.7%	0.2%	1.2%	3.9%	25.0%	0.0%
기타	12.7%	2.6%	1.0%	0.8%		3.2%	1.4%	0.3%	1.9%	0.0%	0.2%	1.7%	41.7%	0.0%

상담기관별 회사소재지

회사소재지	서노권	구로	노원	서대문	성동	서울시	성북	강서	관악	광진	강동	양천	도심	중랑
강남	14.2%	1.8%	4.0%	3.0%		8.9%	6.4%	3.6%	19.0%	11.5%	1.7%	3.1%	8.3%	16.7%
강동	1.0%	0.0%	1.4%	0.0%		1.3%	0.8%	0.5%	0.5%	1.2%	84.3%	0.0%	4.2%	0.0%
강북	1.2%	0.9%	1.7%	3.0%		8.6%	7.6%	0.1%	0.0%	0.9%	0.0%	0.0%	0.0%	0.0%
강서	3.5%	0.0%	0.6%	1.0%		1.2%	1.4%	78.8%	0.0%	0.0%	0.0%	4.7%	8.3%	0.0%
관악	2.0%	2.7%	0.4%	0.0%		1.3%	0.3%	0.2%	44.1%	0.3%	0.0%	0.0%	0.0%	0.0%
광진	0.6%	0.0%	0.6%	0.0%		0.7%	1.0%	0.0%	0.5%	65.8%	0.5%	0.0%	4.2%	0.0%
구로	2.3%	52.2%	0.6%	1.0%		6.4%	0.4%	1.0%	4.6%	0.0%	0.2%	0.0%	0.0%	0.0%
금천	2.4%	15.0%	0.3%	0.0%		5.0%	0.3%	0.0%	7.2%	0.0%	0.2%	0.0%	0.0%	0.0%
노원	2.0%	0.0%	58.4%	0.0%		3.9%	6.3%	0.0%	0.0%	0.9%	0.3%	0.0%	0.0%	0.0%
도봉	0.5%	0.0%	3.6%	0.0%		0.8%	1.4%	0.0%	0.0%	0.0%	0.0%	0.0%	0.0%	0.0%
동대문	3.1%	0.0%	2.0%	1.0%		2.8%	3.7%	0.0%	0.0%	0.3%	0.3%	1.6%	0.0%	0.0%
동작	1.5%	0.0%	0.0%	0.0%		0.8%	0.3%	0.0%	2.6%	0.9%	0.2%	0.0%	0.0%	0.0%
마포	5.4%	0.0%	0.4%	8.0%		2.3%	1.0%	2.1%	2.6%	1.5%	0.2%	3.1%	0.0%	0.0%
서대문	0.9%	0.0%	0.7%	49.0%		1.2%	0.6%	0.0%	0.5%	0.0%	0.3%	0.0%	0.0%	0.0%
서초	4.2%	0.9%	1.1%	0.0%		3.8%	1.9%	0.4%	5.6%	0.6%	1.2%	1.6%	4.2%	0.0%
성동	3.3%	0.0%	0.4%	0.0%		3.5%	1.0%	0.4%	1.0%	3.5%	0.7%	0.0%	12.5%	0.0%
성북	3.0%	0.0%	2.6%	2.0%		6.8%	30.9%	0.0%	0.0%	0.9%	0.3%	0.0%	0.0%	0.0%
송파	4.3%	0.9%	0.7%	1.0%		7.6%	1.9%	0.1%	2.1%	2.9%	2.7%	1.6%	4.2%	0.0%
양천	1.5%	3.5%	0.0%	3.0%		0.7%	0.6%	1.2%	0.0%	0.0%	0.2%	70.3%	0.0%	0.0%
영등포	4.2%	4.4%	0.9%	1.0%		3.4%	0.8%	2.0%	2.6%	0.6%	0.0%	6.3%	0.0%	0.0%
용산	2.3%	0.9%	0.3%	2.0%		3.2%	1.9%	0.0%	0.0%	0.6%	0.2%	0.0%	4.2%	0.0%
은평	1.4%	0.0%	0.1%	6.0%		0.2%	1.2%	0.0%	0.0%	0.0%	0.2%	0.0%	0.0%	0.0%
종로	5.4%	2.7%	0.4%	5.0%		4.1%	4.9%	0.5%	1.5%	0.6%	0.2%	0.0%	0.0%	0.0%
중구	4.4%	0.0%	0.6%	2.0%		5.9%	6.3%	0.2%	0.0%	1.5%	0.3%	1.6%	0.0%	0.0%
중랑	1.3%	0.0%	3.1%	0.0%		1.6%	2.9%	0.0%	0.0%	0.6%	0.0%	0.0%	0.0%	50.0%
경기도	13.5%	11.5%	13.4%	10.0%		10.7%	9.0%	5.1%	2.6%	3.5%	4.8%	3.1%	16.7%	16.7%
기타	10.8%	2.7%	1.7%	2.0%		3.1%	5.3%	3.6%	3.1%	1.5%	1.2%	3.1%	33.3%	16.7%

일하는 당신 곁에, 권리구제지원사업 2016-2019

전체 권리구제지원 통계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한 노동자들: 경비노동자를 중심으로



전체 권리구제지원 통계

노동권을 지키려는 노동 시민의 용기가 모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67**건의 권리구제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 연령대

4년간 연령별로는 60대(22%)와 50대(21%)의 권리구제신청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20대(19%)의 신청도 많았습니다. 전체적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67%)이 청년층인 10대~30대에 대한 지원(33%) 비중보다 높았습니다. 2019년에는 전년도 대비 40대의 권리구제지원이 늘었고 60대에 대한 지원이 다소 줄었습니다.

연령대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10대	1		5	2	8	1%
20대	21	46	22	19	108	19%
30대	8	24	24	18	74	13%
40대	10	14	13	23	60	11%
50대	24	30	29	35	118	21%
60대	35	24	38	26	123	22%
70대 이상	22	16	21	17	76	13%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100%

2. 성별

성별로 보았을 때 4년간의 신청건수에서 여성노동자(50%)와 남성노동자(47%)간 큰 격차가 있지는 않았습니
다. 다만 2019년에는 여성의 신청건수가 140건 중 81건(57%)으로 상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별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남성	51	73	82	59	265	47%
여성	52	79	70	81	282	50%
무응답	18	2			20	4%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100%

3. 직종

직종별로 분류하였을 때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36%)이 높았습니다. 단순노무종사자 중에서도 경비노동자와 미화노동자, 주차관리원 등 주로 용역업체 소속으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중(59.3%)이 높았습니다. 한편 2019년에는 사무종사자의 지원 건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직종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관리자	1	6		1	8	1.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	6	7	8	24	4.2%
단순노무 종사자	47	37	76	44	204	36.0%
사무종사자	5	27	18	35	85	15.0%
서비스 종사자	33	29	20	16	98	17.3%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9	10	11	11	41	7.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0	20	11	12	53	9.3%
판매 종사자	13	19	9	13	54	9.5%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100.0%

4. 업종

업종별로 보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의 비중(24.5%)이 높았습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12.7%)과 도매 및 소매업(11.3%)의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금융 및 보험업은 0.7%로 상대적으로 지원비중이 낮았습니다

업종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건설업		3	3	1	7	1.2%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3	10	8	21	3.7%
교육서비스업	7	12	7	6	32	5.6%
금융 및 보험업		2	1	1	4	0.7%
도매 및 소매업	11	18	16	19	64	1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6	17	9	8	50	8.8%
부동산업 및 임대업	4	5	1	5	15	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34	24	49	32	139	24.5%
숙박 및 음식점업	20	25	15	12	72	1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11	16	7	41	7.2%
운수업 및 창고업	2	7	6	5	20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2	3	2	14	2.5%
제조업	9	9	11	11	40	7.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6	1	12	19	3.4%
협회 및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4	10	4	11	29	5.1%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100.0%

5. 지원유형

임금체불 등 노동청 진정 건이 63.8%로 가장 많았습니다. 해고 및 징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24.3%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원유형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12	35	46	45	138	24.3%
노동청 진정	100	101	77	84	362	63.8%
산재신청	3	7	20	7	37	6.5%
소송	6	10	9	4	29	5.1%
행정심판		1			1	0.2%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100.0%

6. 평균소요일수

지원유형별 *평균소요일수(사건이 행정청이나 법원에 접수되어 판정, 판결, 합의, 화해 등 종결되는 날까지 소요된 일수)는 소송의 경우 평균 241일로 가장 길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이 평균 146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임금체불 등 노동부 진정은 81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한편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경우 다른 유형의 지원과 비교하여 평균 65일이 소요되어 가장 짧은 기간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접수일과 종료일이 확인되는 469건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하였음.

지원유형	평균 소요일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127건)	65
노동청 진정(294건)	81
산재신청(30건)	146
소송(17건)	241
총평균	87

7. 지원결과

지원결과는 당사자 간 합의가 가장 많았습니다(47.3%). 노동관계가 인적관계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노동청과 법원에서 통상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정된 사건(일부인정 포함시)은 22.8%였으며 불인정된 사건은 16.2%였습니다.

사건유형에 따라 세분화할 경우 임금체불과 해고 및 징계사건은 합의가 가장 많았습니다(각각 55.8%, 40.3%).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인정된 사례(18.8%)가 불인정된 사례(7.5%)보다 많은 반면, 해고나 징계사건의 경우에는 인정된 사례(17.4%)보다 불인정된 사례(33.3%)가 많았습니다

지원결과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인정	35	31	24	22	112	19.8%
일부 인정	3	5	5	4	17	3.0%
합의	59	80	65	64	268	47.3%
불인정	15	13	36	28	92	16.2%
포기	9	15	14	3	41	7.2%
*기타		3	7		10	1.8%
진행중		7	1	19	27	4.8%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100%

*스스로 사건을 취하하거나, 고소사건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

인정결과		2016	2017	2018	2019	총합계	비중
4대보험	인정		1		1	2	100.0%
	불인정						
근로계약 (손해배상청구)	인정	1				1	50.0%
	일부 인정	1				1	50.0%
비정규 (차별)	인정			2		2	50.0%
	불인정			1		1	25.0%
	진행중				1	1	25.0%
산업재해	인정	2	3	4	3	12	29.3%
	일부 인정			4		4	9.8%
	합의		1	1		2	4.9%
	불인정	1	1	9	3	14	34.1%
	포기	1	3			4	9.8%
	기타			1		1	2.4%
	진행중		1	1	2	4	9.8%
성희롱, 폭언, 폭행	불인정				1	1	100.0%
임금체불	인정	28	15	12	15	70	18.8%
	일부 인정	2	4	1	4	11	2.9%
	합의	54	65	50	39	208	55.8%
	불인정	11	6	4	7	28	7.5%
	포기	8	10	10	2	30	8.0%
	기타		1	5		6	1.6%
	진행중		6		14	20	5.4%
징계, 해고 등	인정	4	12	6	3	25	17.4%
	일부 인정		1			1	0.7%
	합의	5	14	14	25	58	40.3%
	불인정	3	6	22	17	48	33.3%
	포기		2	4	1	7	4.9%
	기타		2	1		3	2.1%
	진행중				2	2	1.4%
총합계		121	154	152	140	567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지원한 노동자들

— 비노동자를 중심으로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은풍

2015년,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567건의 노동사건(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법률지원이 가장 필요했던 노동자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던 이들은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4년간의 기록들을 정리하면서 서울노동권익센터가 가장 많이 지원했던
직종 내지 업종이 궁금해졌습니다.

직종	사건수	비중
관리자	7	1.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8	4.9%
단순노무 종사자	175	30.9%
사무종사자	86	15.2%
서비스 종사자	108	19.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	54	9.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53	9.3%
판매 종사자	56	9.9%
총합계	567	100.0%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단순노무자의 정의입니다. 일부
직업에서 높은 노동강도가 요구되기도 하지만(예컨대, 건설일용직)
업무수행이 수시간 내의 짧은 훈련으로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요구되는 숙련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그 직업과
그 직업 종사자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이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지원 사례 중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들의 임금체불이나 해고와 같은 노동권 침해가 전체지원의
약 3분의 1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법이 직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걸까요?

직종	사건수	비중
건설노무자	3	1.7%
경비	86	49.1%
고철운반원	1	0.6%
데스크	1	0.6%
물품재고관리원	2	1.1%
미화원	34	19.4%
배달원	3	1.7%
배송원	1	0.6%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2	1.1%
안전도우미, 승하차	1	0.6%
이사짐운반원	1	0.6%
재활용품분류원	1	0.6%
전단지배포	1	0.6%
제조관련단순종사원	9	5.1%
조리원	12	6.9%
주차관리원	13	7.4%
차량주유원	1	0.6%
택배배달원	1	0.6%
포장공	1	0.6%
하역원	1	0.6%

‘단순노무자’ 지원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보고
금방 발견하셨겠지만, 경비노동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86건, 49.1%). 전체 단순노무자 중에서는 절반에 해당하는
비중이고 전체 지원건수(567건) 대비로 보아도 15.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단일 직종 중에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직종입니다. 물론, 사례자체가 표본으로 삼기에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4년간,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찾아오신 서울시 노동자 중에
경비노동자들의 비중이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해마다 3,000건이 넘는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권리구제지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투겠다는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고 단순히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 이상으로 법에서
보호하는 권리가 침해된 사실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의 권리구제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법정최저기준인 노동법
위반 사실이 의심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때문에 권리구제지원이 특정
직종에서 많았다는 사실로부터 이들이 노동권 침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개연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故최희석님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이 뒤늦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건지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몇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고용안정성’입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이면서 동시에 간접고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는 많은 경우 길게는 2년 짧게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고령의 노동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취업처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연장을 위해 아파트 입주자나 관리소장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도 경비노동자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근무시간 중 불연속적인 대기시간이 많기 때문인데요. 사업장에서는 이 점을 악용하여 계약서상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편성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사건유형	지원건수	비중
산업재해	10	11.6%
임금체불	62	72.1%
징계, 해고 등	14	16.3%
총합계	86	100%

구체적인 지원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 임금체불문제를 가지고 방문을 하였습니다(**전체의 72.1%**). 임금체불은 크게 사업난 등을 이유로 한 체불유형과 계산과정에서 법정기준보다 과소하게 산정하여 발생한 체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비노동자의 경우는 후자가 많았고 그 중에서도 휴게시간 과다산정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야간 5시간 휴게시간 중 3시간은 경로당에서 수면을 취하였으나, 2시간은 경비실에서 가수면상태를 유지하라는 업무지시를 받는 등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과다책정하여 이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례, “야간휴게시간에는 대부분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나 주간휴게시간에는 관리소장의 지시로 인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했고, 경비실에서 상주하며 업무를 진행”한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한편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미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입니다. 징계와 해고 등에 대한 지원(16.3%)은 대부분 기간만료에 의한 계약해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2014년부터 5년간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체결하였는데 2019년 관리사무소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고, 관리사무소는 계약만료 통지서를 주면서 사직서 작성을 요구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자 후임자 출근을 통보” 한 사례, “2012년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매년 재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온 경비노동자가 2017년 입주자에게 이동 주차를 부탁했는데 입주자가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화를 냈고, 그 이후 그 주민이 동대표가 되어 신청인의 재계약 갱신을 반대하여, 주민들이 반대서명까지 하였으나 결국 해고”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경비노동자가 가지는 계약갱신에 대한 두려움은 비단 해고사건 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의 계약조건을 수용하여 발생하는 임금체불 문제, 입주민과 용역업체의 갑질에서 비롯된 직장괴롭힘 문제와 같이 다양한 노동권침해유형의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지원한 건수(10건, 11.6%)는 전체지원건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과다한 업무량과 24시간 격일제 야간근무에서 기인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많았다는 점이 주목할만합니다.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일하던 중 용역회사가 바뀌면서 경비원수가 6명에서 4명으로 감소한데다가 택배, 청소, 재활용품 정리 등의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어 노동강도가 높아졌고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선 직후에 바로 쓰러져 즉시 병원에 입원하여 뇌혈관 및 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사례, “아파트 경비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늦은 자정에 근무지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로 사망”한 사안, “사고발생 1주일전부터 입주민의 폭언과 인격모독으로 스트레스가 심했”던 사안으로 실제 산재 승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비노동자들은 대부분 70대의 고령자들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승인에 있어서 기존 병력이 없고 과다한 업무강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동강도가 낮다는 세간의 인식과는 다르게 최근 업무량 조정없이 경비인원을 감축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고, 다양한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맞춰줘야 한다는 점에서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지원결과		해당건수	비중
산재	인정	6	60.0%
	불인정	1	10.0%
	포기	1	10.0%
	진행중	2	20.0%
	총계	10	100.0%
임금체불	인정	20	32.3%
	합의	28	45.2%
	불인정	10	16.1%
	포기	3	4.8%
	진행중	1	1.6%
	총계	62	100.0%

징계해고	인정	1	7.1%
	합의	7	50.0%
	불인정	4	28.6%
	포기	2	14.3%
	총계	14	100.0%
총합계		86	

그렇다면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의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금체불과 징계해고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었고 산재 역시 60%가 인정되어 권리구제지원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서 합의금액에 반영되지 않거나 인정된 경우에도 전체 체불임금에서 일부만 인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징계나 해고 사건의 경우 기간제근로자라는 고용형태상의 한계와 용역업체 변경을 통한 고용승계 불인정으로 실제 심문회의장까지 가서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문을 받은 사례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노동청과 준사법기관으로서 노동위원회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최근의 조사행태와 결정사례를 점검하고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4년여간의 권리구제지원 통계자료에 비추어보면 경비노동자는 서울시의 대표적 취약노동자 중 한 직종이었습니다. 경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논의되는 입주자 갑질 근절과 경비업법 개정 등 다양한 입법적 노력이 지속되고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법자들은 한편으로 이러한 노동권 침해의 기저에 고용불안이 자리하고 있음 또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또한 취약노동자 법률지원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속하여故최희석님과 같은 희생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보다 가까이,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신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자 인터뷰

—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정인철 노동인권팀장)

—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김희향 노무사, 강화연 센터장)

—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장환 노무사, 최해찬 홍보팀장)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내



신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자 인터뷰

때로는 든든한 벗이 되어, 때로는 따뜻한
벗이 되어 서울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동상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는 곳입니다.
관공서 아니고요.(웃음)
누구나 편하게 들러 노동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상담의 원칙인 비밀보장을 지키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최우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정인철 노동인권팀장

“딱딱한 관공서 아니고,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동네 친구 같은 곳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마포에 거주 중인 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일하며 생긴 궁금증을 물어보고 상담할 수 있는
곳입니다. 노동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자문도
합니다. 대기업,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그래도 좀 있는데,
이마저도 없는 취약계층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영세사업자들의 가까운
벗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홍대
상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 상암방송단지의
비정규직 노동자, 아파트단지의 고령 경비노동자 등
마포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쉬고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방법 중
가장 비중이 큰 상담은 무엇인가요?
또는 비중이 커졌으면 하는 상담방법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지금은 전화상담, 온라인상담이 가장 많은데요.

방문상담이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
깊이 있는 상담도 가능하고, 법률적으로 맞다,
아니다 안내만 하는게 아니라 같이 고민도 들어주고
신뢰관계도 형성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만족도도 가장 높고요. 점심시간,
출퇴근시간에 직장인,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하려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어떻게 노동상담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2020년 2월에 센터 개소 전에도,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상담을 해왔어요. 지금과 비슷한
성격의 노동상담을 일상적으로 하다보니 자연스레
센터에서도 제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을까요?

노동조합에서 일할 때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상담을 한 적 있어요. 이런 경우 보통은 회사와 관계가 틀어져 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퇴사할 때 체불임금을 청구하러 안내를 하기도 하는데, 내담자가 회사를 그만둘 마음은 없고 회사의 부조리함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드는게 전공법이니, 동료들과 상의해보라고 했죠. 보통 열에 여덟, 아홉은 포기하고 마는데, 그분은 꾸준히 동료를 만나 문제의식을 나누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2~3년 뒤에 다시 찾아왔어요. 노동조합 만들었다고. (웃음) 그분 상담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올 2월에 개소해서 상담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센터에서 기억에 남는 상담은 고령노동자 상담인데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니 궁금한게 생기면 전화, 카톡 수시 때때로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상담자로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잘 대응해드리니, 정말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진심이 담긴 감사인사가 기억에 남네요.

상담을 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상담 내용이나, 상담하면서 벌어지는 상황은 내 일이고, 본연의 업무라 생각해 크게 힘들지는 않는데요. 막 개소한 터라 노동상담 범위에 대해 내부에서 이견이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세금이나 민사문제에 대한 상담은 노동법과 관련된 상담은 아니지만 벗어나서 고민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법률상담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 범위에 대해 각자 생각이 조금 달라서요.

감정적으로 힘든 상담을 한 후 이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동료들이랑 수다 떨면서, 퇴근하고 술 한잔 하며, 다른 일 하면서 털어 버려야죠. 노동조합 상담을 할 때도 신세한탄 하시는 분, 자식·부모 문제 하소연하시는 분, 분풀이 하시는 분들 상담도 많았었어요~

상담자 교육, 처우개선 등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담의 자세, 최근 개정된 노동법, 최근 노동관련 이슈 등이요. 그리고 예산이 확충되어 상담인력이 좀 더 많아지면 좋겠죠.

노동상담 외 센터에서 주력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노동인권교육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최근 센터장님께서 노동조합 교육을 상암동에서 하셨고, 지역에 노동활동가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노동인권활동가 기초과정 프로그램, 시민노동법률학교 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경비노동자, 배달노동자 실태조사, 정책연구사업도 하고, 지역 내에서 토론회나 포럼 등을 개최하여 개선방법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노동자 모임도 지원하고 있어요. **저는 상담과 교육, 실태조사, 정책연구사업, 조직화 사업이 하나의 흐름을 갖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노동법 이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전국민 고용보험처럼 사각지대의 노동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개인적으로 부당하고 다룰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되면 우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중앙노동위원회, 1심, 2심 계속 길어지면 회사는 버티기 쉬운데 노동자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투기 힘들니 포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행강제금 제도가 있지만, 끝까지 임금을 안주는 회사도 있으니깐요.

아직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해주세요!

딱딱한 관공서 아니고, 옆에서 함께 도와주는 동네 친구 같은 곳입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마지막으로 상담자 또는 센터의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올 2월에 개소했는데, 조기에 센터를 안착화하는게 목표예요. 노동상담, 노동인권교육, 청소년, 문화복지사업 등 활발하게 해서 주민들께 이런 센터가 있구나 하는 걸 알리고 싶어요. 그 기간이 2~3년이 필요하다면 1~2년으로 단축하는게 내부 목표이고요.



은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김희향 노무사,
강화연 센터장

“센터 오셔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힘을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강화연 센터장(이하 K): 2010년 은평에서
노동단체와 지역조합,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우리동네노동자인권찾기모임’을 설립하여, 지금의
센터에 준하는 사업들을 해왔어요. 2012년, 2017년
센터 설립을 추진하다 잘 안 되었고, 2020년에
설립했죠. 은평구는 민간노동단체 활동이 활발한
터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 오래전부터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어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생겨 그동안 약속드렸던
사업을 하나씩 해나갈 수 있고, 넉넉지 않은
예산으로나마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참 좋습니다. 노동인권개선사업, 노동상담, 노동자
소모임, 시민노동법률학교, 풍물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문화센터와 상담소의
기능으로만 국한되지 않고, 노동자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노동의 확장성과 연대의 중요함을 발견하는**

가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을
일터에서 눈치보며 살아오면서 위축된
분들도 많거든요. 센터 오셔서 다른 노동자들과 함께
자신의 권리를 찾고 스스로를 객관화하면서 힘을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K: 노무사님께서 전화, 방문상담을 해주는 시간은
월·화·수·금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이고요. 그 외의
시간은 제가 상담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도 연계해드리고요. 수탁기관인
은평노동인권센터 회원 중 자원봉사로 상담해주시는
변호사님이 있거든요.

어떻게 노동상담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김희향 노무사(이하 H): 2018년부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에서 활동을 해왔어요. 다른
노무사님께 부탁을 받고 은평센터에서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과 상근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부담없이 상담하고 있습니다.

K: 노무사님께 많이 배워요. ‘지역에서 하는 노동상담은 이렇게 되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률상담만 기계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노동자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주려 노력하시거든요.

노동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을까요?

H: 얼마전 경비노동자분이 오셨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상황이었어요. 용역업체가 변경되어 고용승계의무도 없었고... 법률적으로 도울 수 있는 건 없었는데 일을 계속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업체 본사에 연락해 다른 사업장이라도 근로할 수 없나 같이 부탁을 했어요. 이력서 가지고 오신거 팩스도 넣어드리고.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이 되셨어요.

K: 최저임금이 월 130만원 정도였을 때의 일이에요. 영세 자영업 사장님들은 노동법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아파트 건설현장 근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두 달치 임금이 체불되어 상담을 오셨어요. 바로 노동청 진정절차로 가기 전 우선 사장님께 직접 전화를 했죠. 사장님과 상담하신 분이 걸끄러워지지 않게 조심하며, ‘노동법 위반 사항이며 노동청 진정 절차가 있지만, 내담자가 원하지 않으시고 대화로 풀기 원하니, 돈이 없으면 일단 빌려서라도 주셔야 한다’라고 설득했고 바로 그 주에 밀린 급여를 받으셨어요.

상담을 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H: 상담을 하다 보면 법률적으로 구제가 안 되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오신 거라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가 힘들죠.

K: **상담자가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나면 상담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잘하는 편인데, 가끔 화를 내는 내담자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같이**

사용자에게, 법에, 상황에 화를 내죠. 그럼 내담자도 좀 분이 풀리나봐요.

감정적으로 힘든 상담을 한 후 이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H: 잠시 음료를 마시거나 화장실을 가거나 환기를 시키는 편이에요. 상담을 몇 년 하다 보니 상담에 너무 몰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다른 상담도 해야 하니까 기운을 너무 소진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상담방법 중 가장 비중이 큰 상담은 무엇인가요? 또는 비중이 커졌으면 하는 상담방법이 있나요? 이유와 함께 말해주세요~

K: 전화상담이 많은데 요즘에는 방문상담도 꽤 많아요. 하루에 3~5명은 꾸준히 방문상담을 오세요. 방문상담이 아무래도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직접 장소를 보고, 내 편이 가깝게 있구나, 힘도 얻어갈 수 있고. 오픈카톡도 최근 시작했는데,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더라고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업종, 직종 또는 상담유형 등 센터만의 상담 특징이 있나요?

K: 경비노동자 조직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단일 직종으로는 경비노동자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요양보호사분들, 지나가며 보고 오는 버스기사분들도 최근 늘었어요. 홍보를 얼마나 했느냐, 어떤 사업을 주로 했느냐에 따라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들의 구성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노동상담 외 센터에서 주력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K: 노동인문학강좌, 노동법교실, 생활문화교실,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노동자조직지원 사업 등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고 서로 연관된 활동들입니다. 이전에 수탁 기관에서 활동하던 경험을 예로 들면 ‘컴퓨터, 스마트폰 교실’ 참가자들이 다른 교육 강좌에도 참여하고, 노동상담을 지인들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회원 가입을 하시기도 합니다.



생활문화 사업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문화센터에서도 하는데, 굳이 왜 이런 것까지 운영하느냐고 말씀하신 분이 있기도 했습니다.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인다는 것 자체로도 다른 문화 프로그램 운영기관과는 다른 의미가 있지요.

노동법 이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H: **경비노동자들은 대체로 기간제 근로인데, 제도상으로 허점이 너무 많아요. 갱신기대권 법리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 업체가 바뀌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K: **비정규직이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나와도 대기업의 사내 하청은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같은 회사 안에서 뚜렷하게 존재하는 차별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간제가 법제도 안에 굳어져**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부당하고, 위협의 외주화 문제도 있죠. 법이 적용될 때 노동자에게 불리한 부작용이 없는지 살펴야 하는데, 오히려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들도 있어요. 연장근로시간 상한제의 경우에도, 인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업무량은 똑같이 주어져, 노동조건이 더욱 열악해지는 게 일터의 현실입니다.

아직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H: 망설이지 말고 문을 두들기세요~ 사업장에 당연 비밀 보장되니 걱정마시고요.

K: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영리기관의 사업주와 노동자가 같은 사건으로 상담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곤란해하지 마시고, 지킬 것은 지켜드리오니 안심하시고 오세요.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장환 노무사
최해찬 홍보팀장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해찬 홍보팀장(이하 C): 2019년 개소하기 전에는 노원이나 좀 더 멀리까지 가서 상담을 받으셨는데, 가까이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 중랑구민들이 가장 좋아하세요. **저희 센터는 노동상담을 중점으로, 청소년 노동인식 교육, 노동실태조사, 권리구제지원, 취업지원 교육,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동 관련 서비스가 많아진 반면 더 세분화되면서 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려워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 고민없이,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오시면 구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과 ‘종합’에 포인트를 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구민 누구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과 ‘종합’에 포인트를 둔 센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C: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화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합니다. 방문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지만, 출발하기 전에 전화 주시면 가급적 상담을 도와드리려 합니다. 홈페이지(jnlabor.org)를 통해 온라인 상담도 운영하고 있고요.

어떻게 노동상담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장환 노무사(이하 J): 결혼 전에 중랑구에 살았어요. 올 3월에 센터에서 노동상담 제의를 받고 큰 고민없이 ‘내가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랑구에는 봉제사업장같은 영세사업장이 많고, 상담을 오는 분들도 고령자가 많으세요. 상담을 하다 보니 당시에는 잘 몰랐던 우리 동네의 노동문제들을 체감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제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상담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을까요?

J: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화상담을 많이 했는데, 퇴직금 때문에 전화를 주신 분이 있었어요. 처음엔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 궁금해하셨는데, 상담을 해보니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으시고, 연차휴가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셨더라고요. 차근차근 계산을 해드렸고,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셨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단순한 질문에서 권리구제까지 연결되니 기억에 제일 남더라고요.

상담을 하면서 곤란하거나 힘든 때는 언제인가요?

J: 전화상담을 할 때, 특히 고령 노동자 상담을 할 때, 억울하거나 궁금한 게 있으셔도 저희 센터가 관공서라는 생각에 쉽게 정보를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노동상담을 하려면, 직종, 업종, 근로형태 등을 알아야 하는데, 혹시라도 사용자에게 내용이 전달될까 불안한 맘에 말씀하기 꺼리시는 거죠. 면목동 쪽에 봉제공장이 많은데 영세사업장에서 최저임금도 못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안하시니 그게 좀 답답하죠. 직종, 업종을 왜 알아야하는지 설명을 드리면 그제서야 말해주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말씀을 안해주셔서 노동상담이 아니라 단순 정보전달에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힘든 상담을 한 후 이를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J: 몇 십년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거나, 사업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 상담을 하면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가 많죠. 방문상담이었으면 더 속상했을텐데, 전화상담이면 그나마 낫고요.

상담이 끝나면 잠깐 바람을 쐬면서 기분 전환을 해요.

상담자 교육, 처우개선 등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J: 지금은 오후에만 노동상담을 하고, 오전에는 메모를 해 다시 연락을 드리거나, 상담 예약을 잡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 확충되어 오전에도 상담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에서 권리구제지원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좀 많아지면 좋겠고요.**

상담오시는 분들의 업종, 직종 또는 상담유형 등 센터만의 상담 특징이 있나요?

C: **60대 이상 고령 노동자부터 20대 사회초년생 분들의 상담이 많은 것 같아요. 고령 노동자분들은 10년, 20년 장기근속자인 경우가 많고, 20대 분들은 스타트업에 채용된 경우가 많았어요. 센터에서 경비노동자 조직화사업을 하니 최근 경비노동자 상담이 늘었고요.**

J: **지역 내 영세사업장이 많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최저임금 언저리에 있는, 저임금노동자 상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형태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5인미만 음식점에서 조리, 서빙, 배달 업무를 하시는 분들 상담이 많고, 30~40대 분들은 직종과 업종이 다양한 편입니다.

노동법 이슈 중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J: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다룰 수조차 없으니 가장 문제라 생각합니다.** 부당해고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보니 그럼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으시라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이 적용되기는 힘들더라도 최소한 고용안정과 관련된 부분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고를 당한 후 사용자가 시켜 어쩔 수 없이 사직서에 서명을 하고 나와 부당해고를 다룰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이나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습니다.**

아직 상담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마디해주세요!

C: 상담의 원칙인 비밀보장을 지키고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최우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전화나 방문을 해주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지만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도 있으니 먼저 온라인으로 올려주세요. 정성스레 답변해드립니다!

J: **중랑구 특성상 영세사업장이 많고 알음알음 지내다 보니 그냥 참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은데요.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는 곳입니다. 관공서 아니고요.(웃음) 누구나 편하게 들러 노동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부담없이 와주세요.**

마지막으로 상담자 또는 센터의 향후 계획이나 목표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C: 마을버스에 광고를 하거나, 현수막을 걸어둔다거나 센터를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중랑구민들께 노동자를 위한 종합센터가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고 싶어요.

J: 코로나 때문에 센터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텐데... 못하니까 안된다고 하는게 아니라 되게 하려고 상근자분들이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상담도, 권리구제지원도 좀 더 활발하게 되게끔 저도 노력해서 도움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동네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안내

누구나 부담 없이 오며 가며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곳, 우리 동네에도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강동구노동권익센터는 강동구에서 직영하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센터는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심리치료사 등의 전담인력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고용·법률·노무 상담부터
복지·금융·주거·건강 지원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부당해고·임금 체불 등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노동법을 상담과
맞춤형 권리구제 제공
- 고객 응대로 지쳐 있는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돌보는 심리치유사업 진행
- 노동자, 중소기업주를 위한 교육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역량강화
실무교육,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교육

대표전화: 02.3425.8715, 17
홈페이지: <https://gangdong.go.kr/nodong>
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천호동), 오복빌딩 6층
SNS: facebook.com/강동노동인권센터-971629936372273



강서구노동복지센터는 일하는 강서구민의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되고,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이 수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중소기업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와 법률지원
- 노동인권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중장기적인 노동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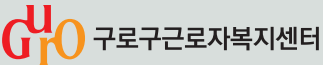
대표전화: 070.4226.8858 (팩스 02.3662.0128)
상담전화: 070.4226.8863
홈페이지: <https://www.gangseolabor.org>
이메일: gangseolc@gmail.com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66 강서구민회관 2층
SNS: facebook.com/gangseolabor



관악구노동복지센터는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관악구청이 설립하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관악구지부가 위탁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 자치구민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
- 시민노동법률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소기업주 노무상담
-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직무교육 및 취업지원
- 관악구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기타 정책연구
- 노동자 문화 복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 관악구 관내 사업장 노사협력 및 노동조합 결성 및
유지를 위한 지원

대표전화: 02.886.7900 (팩스 02.6008.7593)
홈페이지: <http://gwanaklabor.kr>
이메일: galwc@gwanaklabor.kr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34길 37, 구립 덕진경로당 3층
SNS: facebook.com/GWlabor



구로구근로자복지센터는 구로구청의 위탁을 받아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구협의회가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센터는 노동법률 상담·교육, 문화 강좌, 취업지원
등 취약 계층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노동 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인권 및 법률 교육
- 노동환경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 통기타, 목공, 인문학강좌 등 문화사업
- 스트레칭교실, 심리치유 등 노동자 건강지킴 사업,
작은 도서관 운영 등 복지 사업
- 직장인, 경력단절 노동자,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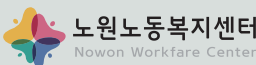
대표전화: 02.852.7339, 40 (팩스 02.852.7342)
상담전화: 02.852.7341
홈페이지: <https://www.laborguro.org>
이메일: gurond@hanmail.net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42 (구로동, 한화비즈메트로 1차) 213호
SNS: facebook.com/pg/laborguro/posts/



광진구노동복지센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민주노총 서울본부
광진구지부가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주 노동자, 단시간 노동자 등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무료 노동상담, 찾아가는 법률지원, 시민노동법률학교 등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인권 교육 및 문화 복지 사업
- 구직자, 경력단절 근로자, 재취업 희망자를 위한 취업지원 사업
- 광진구 노동자 현황 및 실태조사 및 노동정책 홍보 및 캠페인

대표전화: 02.458.5055 (팩스 02.458.5059)
상담전화: 070.7730.5573
홈페이지: <https://www.gjworker.org>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구의동, 웰스타워) 209호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서울시와 노원구청의 예산을 지원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 예비 노동자인
청소년, 장애노동자, 실업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 노동자 노동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 노동조합
설립지원 및 자문 사업, 노동 건강권 사업
- 노동자 및 청소년, 비정규직 노조 등 노동관련법
교육,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
- 시민노동법률학교 운영
-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 직무 교육,
심리상담 지원
- 지역 내 소모임 등 문화활동 지원, 인문학강좌,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대표전화: 02.3392.4905 (팩스 02.3392.4906)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원알바119
홈페이지: <https://www.nowonhope.org>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530-1 지하철 7호선 마들역 지하 1층
SNS: facebook.com/노원노동복지센터-1272915119522805

도봉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도봉구청이 지원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부당해고·임금체불·초과노동·직장내괴롭힘·차별시정 등 ‘노동자 시민법률상담’과 노동자·시민·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있습니다. 또한 돌봄노동자, 서틀버스 노동자, 학교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노동조합 결성지원 프로그램’ 및 ‘노동조합 운영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영세 사업주 및 실업자를 위한 지원과 노동자 문화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노동자 시민 법률상담 교육
- 노동조합 조직화 및 운영지원
- 노동자 문화복지
- 영세사업주, 실업자를 위한 지원

대표전화: 02.3494.4400 (팩스 02.3494.4844)
상담전화: 02.3494.4400
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70길 2 도봉역 하부공간 4~6호
SNS: <http://cafe.daum.net/dobonglaborsc>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는 서울시와 서대문구 조례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지원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노동자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돕습니다. 특히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 장애인 및 극빈층 노동력 상실자 등)의 노동조건 개선, 미조직 노동자 조직지원과 노동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 공인노무사 무료상담(전화·내방·온라인·방문), 노동 관련 법률상담
- 노동법 기초교육, 노동조합 교육, 인문학강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 노동인권 관련 문화 프로그램 운영
- 요가, 스트레칭, 안정교실 등 노동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 지원

대표전화: 02.395.0720 (팩스 02.395.0721)
상담전화: 02.395.0025
홈페이지: <http://sdmworker.org>
이메일: sdmworker@sdmworker.org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484 (홍제동 294-46)
유진상가 3층 331호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마포에서 살거나 직장을 가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마포구가 설립한 기관입니다. 마포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알바생, 프리랜서 노동자,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 벗이 되려고 합니다.

- 노동상담사업
- 노동인권사업
- 문화복지사업
- 네트워크구축사업
- 정책연구조사사업

대표전화: 02.306.2227 (팩스 02.306.0045)
상담전화: 02.306.2226
홈페이지: <https://www.mapolabor.org>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305호
SNS: facebook.com/마포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106364314265871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는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사업장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저임금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등)의 노동인권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 중소기업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익보호와 노동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 주민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
- 시민노동법률학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노동인문학강좌 등 노동권보호와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동교육 시행
- 감정노동자 심리정서 지원 프로그램, 문화·복지강좌

대표전화: 02.497.8573 (팩스 02.499.8573)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상담전화: 02.497.8573
홈페이지: <http://sdlabor.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원6나길 22-11 (성수동1가 13-445)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 2층
SNS: facebook.com/sdlaborhope

성북구노동권익센터는 성북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성북구청의 위탁을 받아 서울일반노동조합이 운영하는 노동복지센터입니다. 센터는 지역 내 노동자와 주민을 위해 노동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법 교육, 문화·복지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작성, 차기 년도 사업계획 수립
- 노동권 침해 사항에 대한 전문 공인노무사의 상시 상담 및 법률지원
- 노동조합 설립, 업종별 노동자 교육 및 모임지원
- 노동관련 문화·복지 사업

대표전화: 02.909.3988 (팩스 02.909.3982)
상담전화: 02.909.3988
홈페이지: <http://www.sblabor.or.kr>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11 (장위2동 65-154)
한성대 성북벤처창업지원센터 206호
SNS: facebook.com/sblabors/

노동과 사람을 존중하는 우리 지역의 든든한 이웃!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와 은평구가 설립하고 은평노동인권센터가 위탁운영하는 기관입니다. 1월 15일에 문을 열어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갖추는데 노력하는 한편 노동 상담 사업과 경비노동자 조직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제 곧 하반기에 접어들면 다양한 생활 활력 프로그램과 정책연구사업이 지역 주민, 노동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무료노동상담 : 전화 상담 및 내방 상담
- 노동 인권 교육 : 시민노동법률학교, 청소년노동인권교육
- 노동자조직화 지원사업 : 지역내 취약 노동자 지원 (경비노동자 등)
- 정책 연구 및 포럼 : 업종별 실태 조사 및 연구 포럼
- 문화복지 및 마음 치유 프로그램 : 풍물, 난타, 원예, 힐링 프로그램 등

대표전화: 02.6952.1871 (팩스 02.6952.1876)
상담전화: 02.6952.1875
홈페이지: <http://eplabor.org>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45
SNS: <https://blog.naver.com/eplabors>

양천구노동복지센터는 양천구청의 위탁을 받아 재단법인피플이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노동자(비정규직, 영세사업장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 증진, 노동복지 증진을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을 통한 노동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 부당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노동권 침해에 대한 상담, 노동법 교육 등 청소년 노동 상담과 노동인권 교육
- 노사 상생을 위한 노무담당자 노무관리 교육, 장애인 고용업체, 사회적 기업 등 노무컨설팅
- 노동존중 인식확산 캠페인, 노동자마음 치유 지원 사업, 노동자 건강과 산업재해 예방사업
- 취약계층 노동현황 실태조사, 지역고용서비스 개선방안연구

대표전화: 02.2645.0034~35, 38 (팩스 02.2062.0185.)
상담전화: 02.2645.0858
홈페이지: <http://www.yclabor.org>
이메일: nbs2019@naver.com
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81, 4층

중랑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중랑구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관입니다.

- 전문 노동 상담(내방·전화·온라인·지하철 찾아가는 노동 상담)
- 중랑구 노동환경 실태조사(요식업, 봉제업)
-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중·고등학교)
- 권리구제 사업(중랑구 및 인근 노동센터가 없는 지역 구민 대상)
- 노동 법률·인권 교육(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교육 등)
-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 대상 조직화 사업
- 취업지원 교육 사업(스토리텔러 3급 교육)
- 문화·복지프로그램(도예, 목공, 우쿨렐레, 인문학 강의)
- 유관 기관과 협력사업(경비노동자, 배달노동자 조직화 사업)

대표전화: 02.496.8477 (팩스 02.435.8473)
상담전화: 02.496.8477
홈페이지: <http://www.jnlabor.org>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역로4길 29, 2층
SNS: facebook.com/jnlabors/

동남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동남권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서울 동남권 지역(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상담과 법률지원, 현장조사와 연구, 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 기본권리 보호와 권익 향상을 실현하고 '노동존중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노동자 행복공간입니다

- 노동현장 방문: 노동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 청취, 해결방안 모색, 현장 노동상담·정부기관 노동서비스 안내
- 노동환경 개선 캠페인: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건강검진·심리상담 등 노동자 건강권 지원
- 노동상담 진행: 공인노무사 상주, 노동관련 상시 상담
- 노동교육 진행: 노동법·노동인권·산업안전 관련 온·오프라인 교육
- 연구조사: 동남권 노동자들의 정확한 노동 및 생활실태를 조사해 개선방안 마련
- 공유사무실·휴게공간 제공: 센터 내 휴식공간 조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표전화: 02.408.5255 (팩스 02.408.5256)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동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 02.408.5255 (내선 5155)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97(효원빌딩) 4층

SNS: facebook.com/DongnamSeoulLaborCenter

도심권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서울 도심권을 중심으로 노동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제조업 종사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출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현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권역단위 취약계층 권익보호 체계 완성과 노동기본권 확충을 위한 이해대변 모델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경쟁의 뒤편에 걸린 노동의 악순환 고리를 풀어내기 위해 노동자 권익을 찾고, 높이고, 키우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를 통해 소외계층 노동자, 시민들의 노동권익 확보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시니어 사회적응 교육, 노사 대상 노동법 교육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원사회 구현
-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 노동존중 인식확신 캠페인 등을 통해 노동권익 향상
- 노동 및 산업 변화에 따른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최적화된 사업개발 및 정책개발
-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조합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과 제도권내 노동단체와의 연대활동을 통해 노동자 스스로 권익을 실현해갈 수 있는 기반 구축 등

대표전화: 02.6959.5255 (팩스 02.6959.5504)

카카오톡 오픈채팅 도심권서울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

상담전화: 070.5143.5370

홈페이지: <http://bb.labor.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56 윤현하늘빌딩 10층

SNS: facebook.com/도심권-서울특별시-노동자-종합지원센터-100731188084958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2019

발행인
이남신

발행처
서울노동권익센터

발행일
2020년 8월 20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기획
이혜수
최진혁
김은풍
이지영
안찬호

편집
이지영

홈페이지
www.labors.or.kr

대표전화
02.6925.4349

디자인
프론트도어

인쇄
인타임



